

“내 딸, 금사월”서 간판배우로 등극

송하운



# “주오월 인기에 책임감 느꼈죠”

최근 종영한 MBC TV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은 간판배우 ‘내 딸, 주오월’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청자 요구에 시달렸다. 복수극에서 여주인공 금사월(백진희 분) 캐릭터가 너무 무력했던 탓이다. 악의 무리에게 속 시원하게 앙갚음한 친구 주오월(송하운)을 대신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송하운은 몰라도 주오월은 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린 송하운(30)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내 딸, 주오월’ 이야기에 쑥스러워하던 송하운은 “다른 반응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제 캐릭터를 열심히 연기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송하운은 원래 주오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장면을 끝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순옥 작가는 주오월을 극적으로 살려냈고, 돌아온 주오월은 복수를 주도하며 극의 중심에 섰다.

송하운은 “주오월이 큰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가게 됐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면서 “캐릭터 비중이 더 커진 데 대한 책임감, 시청자 공감을 어떻게 더 끌어낼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오월은 연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였다”고 소개한 송하운은 사고로 돌아갔을 때를 연기하면서 가장 애를 먹었다고 했다.

“지능이 떨어지는 장면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잘 못 하면 시청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이 정말 컸어요. 결국 그냥 즐기면서 했어요.”

여배우에게 예쁜 얼굴은 감추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로 등장한 것이 아쉽지 않았을까.

“아뇨,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어요. 현장에서 머리 손질도 화장도 제가 했어요. 주오월은 역적같이, 악작같이 살아가는 캐릭터 아니니까요.”

송하운은 지난 8개월 대장정을 돌아보면서 “주오월은 상대 캐릭터가 받아주고 안아줘야 완성되는 인물인데 다른 연기자도 잘해준 덕분에 잘 됐다”고 계속 강조했다.

송하운은 드라마가 자극적인 캐릭터와 개인성 없는 전개로 ‘막장’ 오명을 뒤집어썼던 것에 대해 “저는 주오월로만 열심히 살았을 뿐 ‘막장’ 이런 건 잘 모르겠다”면서 “작가가 ‘막장’을 써야겠다고 의도하고 쓴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순옥 작가의 다른 작품 출연 제안에는 당연히 응하겠다고면서 “연기자로서 제게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2004년 데뷔해 CF 등으로 반짝스타가 됐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보낸 세월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앞집합이나 예뻐를 연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매력을 못 느껴요. 연기할 때도 에너지가 많이 안 나고요. 물론 주오월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가끔 송하운 저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까지 들기도 했지만요.”



왼쪽부터 김민준, 조여정, 신윤주, 이승준

# 조여정 “휘몰아치는 전개가 흥미로워요”

KBS 2TV ‘베이비시터’ 출연 ...14일 첫방송

“다시는 올 수 없는 젊음, 설렘에 대한 질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내 남편이내가 이미 지나온 젊음에 반해서, 나와 나뉘던 설렘을 다른 사람을 향해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겪는 감정 기록과 변화에 공감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오는 14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KBS 2TV 4부작 월화드라마 ‘베이비시터’에 출연하는 배우 조여정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사 중에 ‘나도 그 여자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때가 있었는데’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공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수상한 베이비시터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담은 ‘베이비시터’는 2%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당초 20회에서 4회 축소돼 16회로

종영하는 ‘무림학교’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급하게 편성된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다.

KBS는 당초 후속 작품인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방영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4부작 ‘베이비시터’를 편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여정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베이비시터 장석류, 그리고 그에 흔들리는 남편 때문에 급격히 심경변화를 겪는 주부 천은주 역을 맡았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숨이 턱 막혔다”며 “한 여자의 등장으로 흔들리는 일상이 휘몰아치는 전개로 그려지는 것이 흥미로웠는데 시청자분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대학교수로, 천은주의 남편이면서 장석류에게 흔들리는 유상원 역을 맡은 김민준은 “급작스럽게 기획된 드라마에 급작스럽게 캐스팅됐지만, 촬영을 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자기분위의 시선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본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드라마를 소개했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미스터리한 베이비시터 장석류는 영화 ‘동주’에 출연한 신에 신윤주가 맡았다.

연출을 맡은 김용수 KBS PD는 “사전 제작을 계획했는데 20대 초반이면서도 능동한 장석류를 표현할 배우를 찾기가 어려워 약 75% 사전 제작이 될 것 같다”며 장석류 역활의 캐스팅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강조했다.

# 시즌2로 돌아온 ‘집밥 백선생’

정준영·이종혁 합류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이끄는 tvN ‘집밥 백선생’이 이달 중 시즌2로 돌아온다.

tvN은 7일 백선생의 새로운 네 제

자 중에서 가수 정준영과 배우 이종혁을 1차로 공개했다.

정준영은 요리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로 요리에 관심이 많다. 그는 제작진 사전 인터뷰에서 “사실 생선요리를 하면 사진으로는 예쁜 일품요

리이지만, (실제로는) 생선이 바닥에 늘어붙어 있다”고 고백, ‘하세 요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종혁은 인터뷰에서 “평소 집밥을 하진 않는다. 제가 무슨 요리를 (하겠느냐)”면서 “요리를 하기 싫어하는데 또 막상 해 보면 잘한다”고 주장했다.

tvN은 “시즌2는 이달 중 첫 방송될 예정이며 나머지 제작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TV 프로그램

8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콧노랑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넷워킹 특선 유적토크쇼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덕터 365(재) 05 세기의 라이벌 미래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덕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쏘지락
2	30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송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튜튼생활제초	05 후토스 잃어버린 송(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1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라잉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재) 20 TV, 책을 보다	00 TV유치원 3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5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시사선단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가상남(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가는 법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이웃집 찰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쏘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송터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에메이징 스토리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 걸작 다큐	10 우리동네 예능쇼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불났다 남편법상(재)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문토론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달콤고기 불나물겉절이>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큐 오늘 <해녀 꿈꾸는 베트남 지선씨>
05:30 건강안아침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요리의 탄생 일본 스타>	15:30 피터라미	20:50 세계대기행 <열대의 푸른 낙원, 태국>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 버그	16:0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바다가 보이는 골목>
07:00 뽕뽕뽕 뽕뽕로	07:45 로보카 폴리	16:30 코코도 다코(재)	21:50 EBS 다크프라임 <백성의 물고기>
08:00 덩동덩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22:45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09:00 코코몽3	09:20 워터볼츠	17:30 뽕뽕뽕 뽕뽕로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e(재)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아이를 바꾸는 세 가지 비법>		17:45 로보카 폴리	24:10 EBS 인문학 특강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여목 공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음 1월 30일 己丑)

子	48년생 진분을 가짐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60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 72년생 불안정한 바탕 위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다정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9, 25	午	42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54년생 어떠한 유혹을 해도 듣고 참는 것이 현명하다. 66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만이 해소되리라. 78년생 대체로 변화의 시도와 응응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10, 64
丑	49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더 중요되는 때이다. 61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모여들 것이다. 73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85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행운의 숫자 : 26, 78	未	43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5년생 다짐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79년생 정조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8, 82
寅	50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62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약하여 먹는 법이 아니라. 74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86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79, 35	申	44년생 불기피한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56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68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80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59
卯	51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63년생 구구일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75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87년생 특별히 행기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72	酉	45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터질 수밖에 없다. 57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69년생 악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느니라. 81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6
辰	40년생 외출을 삼가던면 면책하겠다. 52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64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76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88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45	戌	46년생 가깝게 있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58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70년생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82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행운의 숫자 : 24, 85
巳	41년생 잡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다. 53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65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77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89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46, 55	亥	47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71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83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7,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